

다시 피어난 일매헌(一梅軒)의 매화

Apricot flowers that bloom again
in Ilmaecheon

글·사진. 김석환
Kim, Sukhwan
터·울 건축사사무소

겨울을 나며 고사하고 남은 작은 가지에서 매화가 활짝 피어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바람에 메말라 까칠한 모습이었었는데 스스로 봄벌레 감응해 붉은 생명력을 발하는 모습이 반갑고 다행스럽다. 지난주부터 꽃눈이 조금씩 부풀어 올라서 이번 주에 꽃망울을 터트리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손님을 초대했는데, 손님 이 온 오늘 가장 탐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올 겨울은 평년보다 큰 추위가 없었다. 그런데 다시 가지가 죽어 당황스러웠다. 재작년 혹한의 겨울을 보내며 큰 가지 하나가 죽어서 흙을 북돋아준다는 것이 뿌리를 건드려 몸살을 앓게 된 것 같았다. 옥상에 홍매화를 심은 지 16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 사이 제법 동치가 굵어져서 나뭇의 연륜이 배어났다. 묘목 때부터 형태에 균형감을 갖게 할 요량으로 가지 세 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도록 해 두었는데 작년과 올해에 걸쳐 그 큰 가지 세 개를 다 베어내게 된 것이다. 그래도 다행히 남은 가지에서 부풀어 오르는 꽃망울들에 탱글탱글 윤기가 나서 건강한 모습이다.

지금 살아남은 작은 가지는 동치 밑에서 늦게 자라난 결가지였다. 그 가지 하나만 남기고 죽은 가지를 잘라낼 때는 홍매의 생명이 다하는 느낌이 들었다.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어 아예 어린 묘목을 다시 심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정리를 한 후 다시 바라보니 그 작은 가지 하나가 더욱 소중한 보였다. 그리고 신비로운 생명력을 발하며 피어나는 매화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더 귀하게 느껴졌다.

가지를 잘라낸 상태라 외소하기만 할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막상 피어난 매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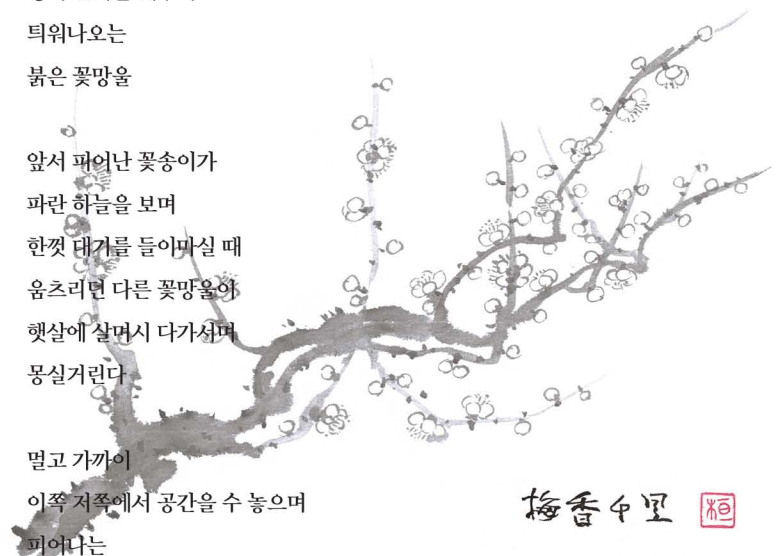
바라보고 있자니 꼭 많은 가지에서 풍성히 피어나는 매화여야 감상의 흥이 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꽃 봉우리가 맺히기 전 마른 가지일 때와 달리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은 가지에서 이르거나 느리게 자라난 꽃망울들이 조화를 이루며 공간의 깊이감과 다양함을 갖추어 자연스러움을 띠게 되었다.


홍매 _ 2019. 03. 08

얼어붙은 겨울을 건디고
생의 환희를 깨우며
턱위나오는
붉은 꽃망울

앞서 피어난 꽃송이가
파란 하늘을 보며
한껏 대기를 들이마실 때
움츠리던 다른 꽃망울이
햇살에 살며시 다가서며
몽실거린다

멀고 가까이
이쪽 저쪽에서 공간을 수 놓으며
피어나는



梅香中로 



붉은 꽃송이

다섯 꽃잎이

저절로 완전한 도형을 이루고

그 안에 꽃술이

금실 수를 놓을 때까지

새 우주가 한창 성글어진다.

올해에는 유독 매화가 생생히 피어날 것을 고대해왔다. 처음 매화를 심으며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나는 그 은근과 끈기의 덕목을 가까이 대하려 했던 것처럼 생명의 신비로움을 대하며 새로운 희망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다.

먼저 피어난 꽃의 형태를 바라보자니 자연의 신비로움이 가득 느껴졌다. 하나의 꽃마다 다섯장의 꽃잎이 균형과 질서를 이루고 있고 꽃샘에서 자라나온 꽃술들도 각각의 꽃잎과 도형적인 질서를 이루며 나와 있었다. 흥매의 황홀함을 대하며 화엄사상의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 이란 말이 떠오른다. 그 말에 비유하면 꽃송이 하나에 우주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꽃이 피기 전까지는 가지가 아무렇게나 뻗어나 보이고 가지에서 싹틀처럼 맺힌

꽃눈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런데 생명력을 발하며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니 꽃눈들이 마치 우주의 섭리처럼 신비로운 질서를 갖춘 듯이 보인다. 가지의 방향, 꽃송이의 배열, 제각각 크고 작게 이르게 늦게 피어나는 꽃송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흠에서 자라나오는 초록색 풀잎, 짙푸른 하늘, 싱싱한 내음이 전해오는 공기, 진갈색 나무 줄기의 색상이 함께 어우러지며 봄 기운을 퍼뜨린다.

매화가 햇살에 시시각각 변한다. 더디 시간이 흘러가도 좋으려면 햇살은 곱고 꽃잎은 다투듯 활짝 피어나고 있다. 탐미로운 매화 꽃송이들은 곧 지고 마음에 허전함을 불러올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대로 시시각각 변화가는 과정의 모습, 그 따름일 것이다.



김석환 터·울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김석환 건축사는 도시건축 등에서 실무를 쌓은 후 1994년 터·울건축을 개설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 서울산업대, 광주대, 삼육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며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1999년 건축문화의 해 초대작가 및 서울시 MP 등으로 활동했으며, 1990~1997년 르 꼬르뷔제의 생애와 건축 기행을 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일산신도시 K씨주택, 곤지암주택, 청풍헌, 목마도서관 등이 있다. 저서로는 건축작품집 '본연성, 담담함', '한국전통건축의 좋은느낌' 등이 있다. terwooll@hanmail.net